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2권 · 제1호 · 1984

韓國都市家族의 家族生活週期 模型 設定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Modeling of Family Life Cycle in Korean Urban Family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家庭管理學科
副敎授 : 劉 永 珠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Liberal Arts & Scienc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Young Ju Yoo

目 次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制限點
Ⅱ. 理論的 背景 및 先行硏究의 考察
Ⅲ. 硏究方法 및 節次
Ⅳ. 結果 및 解釋
Ⅴ. 模型設定 및 論議
Ⅵ. 要約 및 結論
參 考 文 獻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model of Family Life Cycle in Korea now. Answers to a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724 housewives in Seoul area, 232 housewives in big cities, 203 housewives in small cities. The questionnaire contained 10 items about family situations. Analyzing methods employed for modeling of family life cycle are frequency, percentage, X^2-test. Result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ean of first marriage age is 22.4 yrs old. 23.5 yrs old is the result of statistical materials published by E.P.B. 1975. The age of first marriage is higher according to the age, education & residential area.

2) The mean of first baby bearing age is 24.2 yrs old (generally 1 year after marriage). This age is the same as the result of statistical materials published by E.P.B.

3) The mean of last baby bearing age is 32.6 yrs old compared to the E.P.B. statistical materials 3 yrs. low. This age is very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 educa-

tion & residential area.

4) The mean of first child marriage age is 46.4 yrs old compared to the E.P.B. statistical materials 2.5 yrs old low.

5) The mean of last marriage age is 52.7 yrs old. This age is also 2.3 yrs low compared to the result of E.P.B. materials.

6) The number of child & interval is quit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family planning generation or not.

7) According to the wife's employment, it does not show any difference.

8) The result of analyzing by F.L.C., we don't have launching stage & middle age stage apparently.

So, we can make model of F.L.C. in Korea as follows(it will be change).

1) Establishment stage ; from marriage to first baby born.(23 yrs old -24yrs old).

2) Child bearing & rearing stage ; from first baby born to first child enter primary school(24 yrs old - 30 yrs old).

3) Families with children's education stage ; from first child primary shool to high school graduation(30 yrs old - 42yrs old).

4) Families with adult children stage ; from first child got army, college or stay at home(42 yrs old - 48 yrs old).

5) Families with children's marriage stage;from first child marriage to last child marriage(48 yrs old - 57 yrs old).

6) Aging stage ; from last child marriage to self dying(57 yrs old after).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本 硏究의 目的은 韓國家族의 家族生活 實態를 分析하여 家族生活週期 模型을 設定해 보려는 데 있다.

現代 産業社會는 家族의 構造, 機能, 家族間의 相互作用에 여러가지 變貌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家族生活週期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즉 産業 社會에 대처하기 위한 敎育 및 職業準備 等으로 인한 結婚年齡의 變化, 子女出産計劃 및 避姙法의 發達로 인한 子女數의 制限과 터울調節, 醫學의 發達 및公衆衛生의 改善, 食生活 改善 等으로 因한 平均壽命의 延長 等이 家族生活週期의 段階를 變化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속에서 家族生活의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되는 바 그러한 問題를 發見하고 診斷하여 分析하는 데 있어서 家族生活週期라는 槪念(變因)이 매우 有用한 基準이 된다. 家族生活週期는 家族生活에 對한 長期的 眼目을 가지고 家族生活의 目標를 設定하여 家族生活週期의 各 段階에서 發生되는 諸問題의 可能性과 潛在性을 豫測하므로써 家族生活의 問題를 미연에 防止하기 위한 指針을 設定하는데 매우 重要하다. 즉 家族의 行爲를 說明하고 豫測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方法보다 家族生活週期에 依한 方法이 보다 우월하다[1]. 그런데 韓國 家族生活에 있어서 家族生活週期 模型은 外國의 것을 適用할 뿐아니라 實際로 家族生活의 問題를 家族生活週期와 關聯시켜 分析해 놓은 硏究도 많지 않은 實情이다. 여성단체나 보험회사 등이 저축 또는 보험을 강요하기 위한 手段으로 家庭의 經濟行爲와 연관시켜 硏究한 것이 몇몇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本 硏究에서는 現在에 있어서의 家族生活模型을 糾明해 보고자 한다.

2) 硏究의 制限點

本 硏究는 표집방법에 있어서 家族生活週期는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本 硏究에서는 集落標集(cluster sampling) 方法을 擇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편파를 예상할 수 있고 이는 硏

究結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家族生活週期 硏究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 方法을 導入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격변기를 많이 겪은 社會에서는 年齡(世代), 階層別(所得,學歷,職業), 地域別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므로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構造的인 硏究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以上의 內容은 本 硏究의 制限點인 同時에 앞으로의 硏究方向에 對한 提言이 될 것이다.

Ⅱ. 理論的 背景 및 先行硏究의 考察

家族生活週期(Family Cycle, Family Life Cycle)란 人間이 家族生活에서 경험하는 未婚·結婚·出產·育兒·老後의 各 段階에 걸친 시간적 連續을 말하는 것으로, 家族은 結婚으로 「形成」되고 子女의 出產으로 「發展·擴大」되다가, 子女의 結婚·分家로서 「縮小」되면서 死亡으로 家族生活의 一週期는 그 終幕을 내린다[2].

이러한 家族週期는 같은 時期, 같은 地域, 같은社會에 있는 사람은 비슷한 型(pattern)의 家族週期 단계(stage)를 形成하게 된다. 家族生活週期에 관한 연구를 서구,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의 順으로 考察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구의 Family Life Cycle 硏究

個個의 人間과 같이 家族에도 形成-發展-衰退-消滅이라는 週期가 있다는 事實을 19C말 England 요크셔의 노동자 家計 變動을 硏究한 英國 經濟學者 B.S. Rowntree나 소련 農業 經濟學者 A.V. Chayanov 等에 依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Family Life Cycle」이라는 槪念으로 정식화 된 것은 1930년대 美國의 農村 社會學者들, 예를 들어 P. Sorokin, C.C. Zimmerman, C.J. Galpin 等에 依해서 였다. 이들은 農村 家族에 있어서 生活 意識이 週期를 갖고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각 家族의 時間 經過에 따른 成員構成과 크기의 變化에 직접 關聯되어 있음을 論하면서 家族構成의 變化에 따라 ① 新婚夫婦, ② 1명 以上의 子女를 가진 夫婦, ③ 1명 以上의 子女가 獨立한 夫婦, ④ 全子女가 結婚한 老夫婦의 4段階로 區分하였다.

그 後 1934年 E.L. Kirkpatrick, R. Tough, M. Cowles는 子女의 成長과 年齡을 中心으로 P. Sorokin等의 4단계 週期說을 조금 수정하여 ① Preschool Family, ② Grade School Family, ③ High School Family, ④ All Adult Family로 재정식화 하였다[3].

1940년대에 있어서는 1942년에 발표된 Haward Bigelow의 7단계 週期說은 家庭의 收入·支出, 子女의 教育狀態를 기준하여 區分된 것으로서, ① establishment, ② child bearing and preschool period, ③ elementary school period, ④ high school period, ⑤ college, ⑥ period of recovery, ⑦ period of retirement이다[4].

1948年 美國의 「家族生活全國協議會」가 워싱턴에서 開催되었는데, 여기에 提出된 家族生活週期 段階論은 첫子女의 年齡과 役割을 基準으로 ① 子女가 없는 夫婦, ② 첫子女가 30개월 以內인 夫婦, ③ 첫子女가 2.5歲~5歲인 夫婦, ④ 첫子女가 5歲~12歲인 夫婦, ⑤ 첫子女가 13歲~19歲인 夫婦, ⑥ 첫子女獨立에서 막내子女 獨立까지의 夫婦, ⑦ 老年期로 區分된 것이었다[5].

1950년대에 있어서 1955년 Lansing과 Morgan은 家族의 生活週期를 ① 獨身期, ② 子女가 없는 新婚夫婦, ③ 막내子女가 6세 以下인 젊은 夫婦, ④ 막내子女가 6세 以上인 젊은 夫婦, ⑤ 子女가 있는 45세 以上의 夫婦, ⑥ 18세 이하의 子女가 없는 45세 以上의 夫婦, ⑦ 獨身의 노인기로 나누었으며, 이는消費者 財政과 生活週期에 관한 최초의 體係的, 經驗的 硏究로서, 生活週期에 따라 所得, 所得의 主要使用, 自產과 부채등이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硏究問題로 하였다[6].

이어 1957年 Lansing과 Kish는 人間行動 硏究에서의 종래의 기계적인 人口學的 變數, 特히 年齡의 適用을 批判하고 人間의 社會活動 理解는 個人의 年齡보다 個人이 屬한 家族生活週期 段階를 고려하는것이 더 有用하다고 主張하면서 家族生活週期를 ① 獨身 전기, ② 子女가 없는 젊은 夫婦, ③ 막내子女가 6세이하인 젊은 夫婦, ④ 막내子女가 6세 以上인 夫婦, ⑤ 子女가 있는 中年 夫婦, ⑥ 18세 以下의 子女가 없는 中年夫婦, ⑦ 獨身 後期, ⑧ 其他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家族生活週期 段階와 家族의 소비패턴의 重要한 측면을 나타내는 住宅所有, 부채, 主婦의 就業, $ 4,000이상의 所得, 새 자동차의 구입, TV 購入의 經濟變數와 關聯하여 年齡과 비교 분석한 結果 어느 項目에서도 年齡보다 家族生活週期가 消費者 行動의 說明 要因으로서 유효함을 指摘했다[7].

1957年, 家族社會學者 Evelyn. M. Duvall은 "家族은 그 첫子女를 基準으로 어떤 段階를 거치며, 둘째가 태어나면, 그것을 反復한다"라고 主張하고 첫子女 年齡을 기준으로 家族의 擴大期를 5段階, 縮少期를 3段階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총 8段階의 家族生活週期를 設定하였다. ① 新婚期의 夫婦家族, ② 子女出產期 家族, ③ 學齡前 兒童期 家族, ④ 國民學校 兒童期 家族, ⑤ 10代 子女 家族, ⑥ 進水期 家族, ⑦ 中年期 家族, ⑧ 老年期 家族[8].

1960年代에 있어서는 以上과 같이 家族의 生活週期는 主로 첫子女의 成長을 기준으로 區分됨에 따라서 한 家族이 어느 한 段階에만 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段階에 屬하게 되는 問題點이 생기므로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고자 1960년 R.H. Rodgers는 첫子女뿐 아니라 막내子女의 年齡과 役割도 고려하여, 家族生活週期를 ① 가정형성기, ② 嬰兒期 子女 家族, ③~④ 학령前 兒童期 家族, ⑤~⑦ 國民學校 兒童期 家族, ⑧~⑪ 10代 子女 家族, ⑫~⑯ 成人 子女 家族, ⑰~㉑ 進水期 家族, ㉒ 中年期 家族, ㉓ 老年期 家族, ㉔결손가족의 24段階로 설정하였다. 그의 이러한 段階 區分은 役割複合에 있어서의 重要한 變化를 重視하였다[9].

1964年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는 소비자 재정을 위한 survey에서 家族生活의 段階를 크게 4段階로 나누고, 細分하여 11段階로 나누었다. ① 家口主가 45歲 以下인 獨身者家族, ② 가구주가 45歲 以下이고 子女가 없는 夫婦家族, ③ 家口主가 45歲 이하이고 막내子女가 6歲 以下인 家族, ④ 가구주가 45歲 以下이고 막내子女가 6歲 以上인 家族, ⑤ 家口主가 45歲 以上이고 子女가 있는 家族, ⑥가구주가 45歲 以上이고, 18歲 以下의 子女가 없는 家族, ⑦ 家口主가 勞動力이 있는 家族, ⑧ 家口主가 은퇴한 家族, ⑨ 獨身이고 子女가 없으며 家口主가 勞動力이 있는 家族, ⑩ 獨身이고 子女가 없으며, 家口主가 은퇴한 家族, ⑪ 어떤 年齡이든 獨身이고 子女가 있는 家族[10].

1965年 Life study : Expenditure patterns of the American Family에서는 家族을 ① 6歲 以下의 子女가 있는 家族: a) 6세 이하의 子女와 6세 이상의 子女가 있는 家族, b) 모두 6세 以下인 家族, ② 6歲以上의 子女가 1명 있는 家族 : a) 모두 6~11세인 家族, b) 12세 以上이 있는 家族, ③ 子女가 없는 家族 : a) 남편과 아내만 있는 家族, b) 其他, 즉 獨身者, 과부, 홀아비인 家族으로 나누었다[11].

1970年代에 있어서 1972년 C. Milton Coughenour은 家族生活週期와 식품소비활동을 硏究하면서, 첫子女와 막내子女의 年齡을 기초하여 家族을 다음과 같이 6段階로 分類하였다. ① 子女가 없는 新婚夫婦, ②擴大期-막내자녀가 6세 以下이고, 16세 以上의 子女는 없다. ③ 安定期-막내子女가 6세 以上이고, 15歲 以下의 子女가 없거나, 막내子女가 6세 以下이고, 첫째 子女가 15세 이하이다. ④ 縮小期- 16세 以上의 子女가 적어도 1명이고 6세 以下의 子女는 없다. ⑤ post-parental childless-모든 子女가 집을 떠나고 夫婦만 있다. ⑥ Childless older married-結婚후 10년 이상 子女가 없는 夫婦[12]

1974년 Rollins and Cannon은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結婚만족 硏究에서 家族生活週期를 ① Newly married, ② Infant, ③ Preschool, ④ Schoolage, ⑤ Teenage, ⑥ Launching, ⑦ Launched, ⑧ Retired와 같이 8段階로 區分하였다[13].

1975年 S.Smart와 C.Smart는 뉴질랜드의 家族生活週期 硏究에서 Rollins와 Feldman의 주기단계를 이용하였는데, 그것은 ① 初期 結婚 段階, ② 맏子女가 2세까지의 段階, ③ 맏子女가 5세까지의 段階, ④ 맏子女가 13세까지의 段階, ⑤ 맏子女가 20세까지의 段階, ⑥ 맏子女가 집을 떠날 때까지의 段階, ⑦ 막내子女가 집을 떠날 때까지의 段階, ⑧ 은퇴기의 8단계로 1974년 Rollins와 Cannon의 段階와 일치한다[14].

1974年 유고슬라비아의 Life Cycle硏究에서 Ruza First-DiLić은 ① Prechild family ; 新婚夫婦, 結婚 5年까지 子女가 없는 경우, ② Preschool family ; 첫子女가 6세 以下인 경우, ③ School-Age family ; 첫子女가 7~14세인 경우, ④ Family of adolescent ; 첫子女가 15~18세인 경우, ⑤ Family of self-supporting ; 첫子女가 19세 以上부터 집을 떠날 때까지, ⑥ Child-Launching family ; 첫子女가 집을 떠날 때부터 막내가 집을 떠날 때까지, ⑦ Post-child family ; 모든 子女가 집을 떠난 後부터 夫婦의 死亡까지로 7단계로 區分하였다[15].

1970年代의 또 다른 家族生活週期 段階說은 1975年의 Deacon과 Firebaugh의 4段階說로 이들은 結婚期間을 기초로 區分하였다. ① Foundation years-結婚期間 0~4年, ② Developmental years-結婚期間 5~19年, ③ Assessment, achievement and readjustment years-結婚期間 20~39년, ④ Retirement

years - 結婚期間 40年 以上이다[16].

1979年 G. Zaltman과 M. Wallendorf는 消費者 行動硏究를 爲한 家族生活週期의 段階 設定을 다음과 같은 10段階로 區分하였다. ① Childhood and Adolescence ; 부모로 부터 원조를 받고 同居한다, ② College, ③ Single stage, ④ Cohabitation stage, ⑤ Newly married stage ; 子女가 없는 期間, ⑥ Older parent stage ; 子女의 10歲까지 期間, ⑦ Empty nest stage, ⑧ Retirement stage, ⑩ Survivor이다[17].

1979년의 또 하나의 家族週期 硏究는 B. Spanier, Saucer, 그리고 Larzelere의 硏究로 첫子女의 年齡을 中心으로 ① 子女가 없는 6年 以下된 夫婦, ② 첫子女가 6세 以下인 夫婦, ③ 첫子女가 6～12歲인 夫婦, ④ 첫子女가 13～20세인 夫婦, ⑤ 현재 1명의 子女만 있는 모든 家族, ⑥ 집에 함께 사는 子女가 1명도 없는 家族, ⑦ 同居하는 子女가 없고 남편이 65세 以上된 家族의 7段階로 나누었는데, 家族生活週期에 대한 경험적 평가에서 였다[18].

1980年代에 있어서는 1980年 發表된 Tienda의 페루에서의 家族生活週期 分析에서는 家族生活週期를 ① 婦人의 年齡이 45세 이하이고 子女가 없는 새로形成된 家族, ② 맏자녀가 6세 이하인 子女出産期 家族, ③ 맏子女가 6～13세인 학령기 家族, ④ 맏자녀가 14～18세인 청소년기 家族, ⑤ 맏자녀가 19세 이상인 成人子女 家族, ⑥ 婦人이 45세 이상이고 현재 子女가 同居하지 않는 家族으로 區分하였다[19].

1981年 B. Schafer와 M. Keith 硏究에서는 아내와 子女의 연령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段階를 구분하였다. ① 45세 以下의 아내와 子女가 6세 이하인 家族, ② 아내의 연령은 관계없이 6～18세의 子女가 적어도 1명인 家族, ③ 아내가 45～59세이고 자녀가 同居하지 않는 家族, ④ 아내가 60세 以上이고 子女가 同居하지 않는 家族의 4段階였다[20].

2) 日本과 中國의 Family Life Cycle 硏究

日本과 中國의 傳統的 家族은 모든 子女가 結婚과 同時에 分家하여 核家族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인의 子女가 (주로 長男) 結婚後에도 父母와 同居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家族으로 이 pattern을 반복함에 의해 家族에 屬하는 財産, 職業, 社會的 地位 等을 초세대적으로 보유·지속한다는 「家」의 觀念的 意識이 지배하여 2세대 또는 3세대가 한 家族안에서 存在하며, 동시에 成長·發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的 家族形態는 다른 세대의 核家族의 단순한 연합체도 아니며, 또한 모든 世代에 存在하는 단 하나의 社會的 實體도 아니었으므로, 이런 傳統的 家族形態에서는 가계의 계속성을 상징하는 家父長權(family headship)의 繼承을 고려하여 家族生活週期를 區分해 볼 수 있다.

Kiyomi Morioka(1967)는 傳統的 日本 家族의 生活週期를 다음과 같이 區分하였다. ① 연속되는 世代의 두 夫婦가 함께 同居하며, 家父長權은 아버지에게있는 家族, ② 아버지가 은퇴했거나 死亡하고, 家父長權이 아들에게 있는 家族, ③ 어머니도 死亡한 後, 젊은 世代의 核家族만 남은 家族, 이 제 3의 段階는 아들 (후계자)의 結婚으로 제 1段階로 옮겨진다.

또한 Kiyomi Morioka의 중국 전통가족의 生活週期 分類는 ① 家族이 形成된 때부터 큰아들의 結婚 까지의 核家族 段階, ② 큰아들의 結婚에서 둘째 아들의 結婚까지의 stem family household stage, ③ 둘째아들 결혼으로부터 부모의 死亡까지의 joint-family household stage, ④ 아직 살아있는 부모가 없는 joint-family household stage의 4단계이다[21].

태평양戰爭 以後 점차 夫婦家族이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子女가 結婚하면 父母의 家族에서 分離·獨立하는 것을 原則으로 함에 따라 結婚은 새로운 家族의 成立·탄생을 意味하게 되었고, 核家族이 보편적인 家族形態가 되었다.

1973年 森岡清美는 이러한 日本의 核家族의 生活週期를 ① 新婚期, ② 育兒期, ③ 教育期, ④ 배출기, ⑤ 向老期, ⑥ 은퇴기, ⑦ 孤老期로 區分하였다[22].

1969年 (昭和 44) 田內幸一의 消費者行動論에서 家族의 生活週期를 다음과 같이 區分하였다. ① 獨身時代, ② 結婚期-a) 子女가 없는 新婚夫婦, b)부양자녀가 있는 完全家族(full nest), c) 子女들이 獨立한 後의 empty nest, ③ 생존해 남은 배우자[23].

1980年 伊藤秋子는 對象者의 年齡과 子女數를 組合하여 家族의 生活週期 段階를 설정하였다. 이는가정의 經濟生活과 消費構造를 硏究하기 위한 分類로서 다음과 같다. ① N type-兩親과 未婚子女家族 (중년기; 45～54세, 向老期; 55～64세), ② C type-夫婦家族(중년기; 45～54세, 向老期; 55～64세, 老年期; 65～74세), ③ C-N type-老夫婦와 旣婚子女 同居家族 (向老期, 老年期), ④ M-N type-母와 旣婚子女 同居家族 (向老期, 老年期). 이 硏究는 중고령자 (45～74세)를 對象으로 한 生活 조사였다[24].

昭和 57 年(1982), 柏木重秋는 家族生活週期를 ① 獨身前期, ② 新婚段階, ③ 子女養育期, ④ 脫 子女養育期, ⑤ 消滅期로 區分하였으며[25] 江見康一・伊藤秋子는 ① 家族形成期 ; 20～30代 夫婦로서, 結婚에서 國民學校 입학전의 乳幼兒를 가진 父母, ② 家族 成長期 ; 30代 후반～50代 초반으로 初・中・高・大生을 가진 父母, ③ 家族成熟期 ; 50代 초반～50代 후반으로 學校教育 終了後의 未婚子女를 가진 父母, ④ 老齡期 ; 50代 후반 以後로 全 子女가 獨立한 父母로 家族生活週期를 나누었다[26].

3) 韓國의 Family Life Cycle 硏究

우리나라의 家族生活週期에 對한 본격적 硏究는거의 全無한 형편이며, 대개 家族生活週期를 독립변수로 하더라도 外國의 理論을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統計資料를 利用하여 우리나라의 家族生活週期를 設定하려는 몇몇 시도가 이루어졌다.

金疇洙・李熙培는 아내를 기준하여 子女 3명을 2年 간격으로 出產한 것으로 가정하고, 1966年의 經濟企劃院 統計資料를 기초하여 女性과 男性의 初婚年齡은 23.7세(약 24세), 27.9세(약 28세)로 하여 ①독신 전기, ② 夫婦 前期 ; 본인의 結婚에서 長子出生 前까지, ③ 친자동거기 ; 장자출생에서 막내의 婚姻, 分家 前까지, ④ 夫婦 後期 ; 막내의 分家에서 배우자 일방의 死亡까지, ⑤ 독신 후기로 家族生活週期를 구분하였다[27].

1979 년 朴惠敬은 1975 年 經濟企劃院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初婚年齡은 男子 28세, 女子 24세, 平均壽命은 66세, 70세로써, 1 남1 녀의 家族構成을 基礎로, ① 新婚期 ; 가구주 年齡 28～30세, 첫子女 1세까지, ② 家族形成期 ; 家口主年齡 31～38 세, 子女가 유치원, 國民學校시절로서, 첫子女는 2～9 세이다. ③ 家族成長期 ; 家口主年齡 35～53세, 첫子女年齡 10～24세로서 國校・中・高・大學校・軍入隊를 包含한다. ④ 家族成熟期 ; 家口主年齡 54～58세, 첫子女 年齡은 25～29세이다. ⑤ 은퇴기 ; 家口主年齡 59세 부터이다. 이 硏究는 老後生活을 爲한 家計設計를 爲한 것이었다[28].

1980 년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Life Cycle 모형 수립에 의거하여 長期生活 設計硏究에서 1975～1979 年의 經濟企劃院 統計資料를 利用하여 初婚年齡 男子 27세, 女子 24 세, 1 男1 女, 55세 퇴직의 가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家族生活週期를 段階 設定하였다. ① 家口形成 및 生活基盤 定着期 ; 가구주연령 27～40세, ② 가계생활 신장기 ; 가구주연령 40～55세, ③ 安定期 및 世帶交滯期 ; 家口主年齡 55세 以後[29].

1980年 玉先花는 家族計劃硏究院과 경제기획원의 최근 統計資料를 基礎로 平均 子女數 3 名, 結婚年齡 男子 27세, 여자 24세로 韓國人의 家族生活週期의 段階別 지속연한을 중점적으로 分析하여 韓國家庭의 家族生活週期 類型을 糾命하고자 하였는데, Duvall의 8段階 家族生活週期를 基本으로 하였다. 이 硏究에서는 ① 新婚期 ; 家口主年齡 27～28세, ② 子女出產期 ; 家口主年齡 28～34세, ③ 學齡前 兒童期, ④ 國民學校 兒童期, ⑤ 10代 子女期, ⑥ 進水期 ; 家口主年齡 52～61세, ⑦ 中年期, ⑧ 老年期 ; 家口主年齡 65세 死亡, 婦人 70세 死亡으로 區分하였는데, 제 2 단계에서 제 6단계까지의 지속 年限은 30～34 年이고, 제 7 단계에서 제 8 단계까지의 지속 年限은 4～7년이었다[30].

권희완은 1935～1975年까지의 各種 統計資料를 基礎로 하여 韓國婦人의 家族生活의 변천을 考察하였으며[31], 강희석, 최인현, 임종수는 統計資料와 文獻硏究를 通하여 1925～1929年에 出生한 婦人과 1945～1949 年에 出生한 婦人의 家族生活週期 段階를 區分짓는 各 年令을 比較, 檢討하였다[32]. 권희완과 강희석등은 Paul Kwong이 使用하였던 Paul Glick의 核家族 週期의 模型에 依據하여 分析하였다. 즉 形成期, 擴張期, 完全擴張期, 收縮期, 完全收縮期, 解體期의 6段階 模型이다.

以上으로 歐美, 日本과 中國 우리나라의 硏究結果를 考察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文獻이나 資料를 通한 考察이었고, 實態調査를 通한 標本 調査는 없었다. 그러므로 本 硏究가 시도하는 實態調査(empirical study)를 通한 硏究의 意義가 더욱 크다고 生覺된다. 以上의 先行 硏究를 表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뒷 page).

Ⅲ. 硏究方法 및 節次

家族生活週期를 分析하는데 必要한 要因을 묻는 질문지를 作成하여 標本調査를 하였다. 질문지의 內容은 家族의 一般的 狀況(年齡, 職業, 同居如否)과 家族員數를 쓰도록 하고, 婦人의 現在나이, 男便의 現在나이, 結婚햇수, 첫子女 出產年齡, 막내子女 出產年齡, 배우자의 死亡年齡, 子女數 等을 기재토록 하였다.

調査對象 地域은 서울과 대도시, 소도시의 도시로 결

家族生活週期에 對한 先行硏究 比較

연구자	Sorokin, Zimmerman, Galpin	Bigelow	家族生活 全國協議會	Beyer	Duvall
년도	1931	1942	1948	1949	1957
분류 기준	가족성원 변화	가정의 수입·지출과 자녀의 교육상태	첫자녀의 연령과 역할	거주자의 요구에 대한 planning projection	첫자녀 연령
가족생활주기단계	married couple	establishment	자녀가 없는 부부	The young couple, no children	married couples
	couple with one or more children	child bearing and preschool period	첫자녀가 30개월 이내인 부부 첫자녀가 2.5세~5세	Founding Family	child bearing families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elementary school period	첫자녀가 5세~12세	Growing Family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첫자녀가 13세~19세		
		high school period			families with teenagers
	family with one or more adult self supporting children		첫자녀 독립 ~ 막내 독립	The Contracting Family	
		college			families as launching centers
			노년기		
		period of recovery			middle aged parent
	couples growing old	period of retirement			Aging family members

g and sh	Rodgers	Ruză First-DiLić	Rollins and Feldman	Deacon and Firebaugh	Dan Soen	森岡清美	柏木重秋	江見康一, 伊藤秋子	朴 惠 敬	서축추진 중앙위원회
957	1962	1974	1975	1975	1979	1973	1982	1982	1979	1980
	첫자녀와 막내의 성장 및 역할			結婚 期間						
; Married, children	beginning families	Prechild Family	Newly married	Foundation years	Stage of growing family	신 혼 기	신 혼 기	가족형성기	신 혼 기	가구형성 및 생활기반 정착기
married h children	families with infants	Preschool Family	Infant			육 아 기	자녀양육기		가족형성기	
	preschool families with infants preschool families		Preschool	Developmental years						
	school age families with infants school age families with preschoolers school age families	School-Age Family	schoolage			교 육 기		가족성장기	가족성장기	
	teenage families with infants teenage families with preschoolers teenage families with school-agers teenage families	Family of Adolescent	Teenage							
married h children	young adult families with infants young adult families with preschoolers young adult families with school-agers young adult families with teenagers young adult families	Family of self-supporting	launching	Assesment, achievement and readjustment years						가계 생활 신장기
		Child-launching Family	launched							
married, children der 18	launching with infants launching with preschoolers launching with school-agers launching with teenagers launching with young adult				The static stage	배 출 기		가족성숙기	가족성숙기	
	middle years	Post-child Family	Retired	Retirement years		향 로 기	탈자녀양육기	노 령 기	은 퇴 기	안정기 및 세대교체기
	aging					은 퇴 기				
one adult home	widowhood					고 로 기	소 멸 기			

성하고, 大都市로서는 부산, 대전, 전주, 대구, 광주의 5개도시, 小都市로는 진해, 충무, 군산, 춘천, 경주, 거창, 김천, 마산, 창원, 김해, 하동, 서산, 보성, 완주등 14개 都市를 선정하였다. 調査對象을 都市로 限定한 것은 應答者의 記載能力을 감안하였으며, 여러가지 여건상 都市와 農村을 총 망라한 全國的 規模로 實施하는데 制限點이 있으므로, 一次的으로 都市를 對象으로 調査하였다.

調査期間은 1982년 11월 1일부터 1983년 2월 20일까지로 지역적 거리로 因한 人便의 往復 및 우편물로 因한 수집등이 시간을 소요케 하였다. 질문지는 총1,500部*를 배부한 結果 1,228部를 回收하였으며, 回收된 質問紙의 일반적 狀況은 다음 〈표 1.〉과 같다.

蒐集된 資料에 있어서 다른 硏究의 질문지와는 달리 같은 질문지 내용에 있어서도 家族生活週期 分析에 必要한 要因을 全部 기재치 않았다 해도 記入된 資料는 모두 선정하였으므로 地域別 學力別 事例者가 全部 달리 나타나게 되었다. 즉 1要因만의 不實記載가 있다 하더라도 全部 硏究資料로 使用된 셈이다.

回收된 자료는 다시 學力(① 大卒以上, ② 高卒, ③ 中卒, ④ 國卒以下)을 V_1로, 職業(有, 無)을 V_2로, 家族週期(12段階)*는 V_3으로, 婦人의 現在 年齡은 V_4로 男便의 현재 年齡은 V_5로, 結婚햇수는 V_6으로, 결혼당시 婦人의 年齡은 V_7로, 첫子女 出產時 婦人의 年齡은 V_8로, 막내子女 出產時 婦人의 年齡은 V_9로, 첫子女 結婚時 年齡은 V_{10}으로, 막내子女 結婚時 年齡은 V_{11}로, 남편 사망시 年齡은 V_{12}로, 子女數는 V_{13}으로 定하여 Coding한 후 KAIST에 依賴하여 S.A.S. package에 依한 算術平均, Frequency, χ^2검증등의 方法으로 電算處理 하였다.

Ⅳ. 結果 및 解釋

蒐集된 資料를 가지고 다음 〈표 2〉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위 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年齡別로는 年齡이 증가할수록 初婚年齡이 낮고 그에 따라 첫子女 出產年齡이 낮았으며, 家族計劃事業의 影響으로 막내子女 出產의 年齡은 年齡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따라서 子女數도 年齡이 높을수록 많고, 터울도 年齡이 증가할수록 길었다. 이를 新·舊世代 즉 39歲 以前 世代와 40歲 이후 世代로 大別하여 고찰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權熙琓과 강희석등의 硏究와도 一致하는 結果이다[33][34].

學力別로 나타난 結果를 보면 學力이 높을수록 初婚年齡이 높고, 따라서 첫子女 出產年齡이 높았으며,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家族計劃 實踐率이 높아 막내子女 出產年齡이 낮고, 反對로 敎育水準이 낮을수록 막내子女 出產年齡이 높았다. 子女數에 있어서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子女數가 적었으며, 터울에 있어서도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터울이 짧고, 敎育水準이 낮을수록 터울이 길었다.

居住地別로 나타난 結果를 보면 서울, 大都市, 小都市 順으로 初婚年齡이 높고, 따라서 첫子女 出產年齡이 높았으며, 반대로 막내子女 出產年齡은 小都市, 大都市, 서울의 順으로 높게 나타났다. 都市女性 일수록

* 1,500部를 배부한 理由는 集落標集(Cluster Sample)과정의 허용오차 信賴限界를 .05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回收되는 資料를 1,200部로 하기 위함이었다(C.H. Backstrom & G.D. Hursh, 1963 : 24–25).

*家族週期는 ① 形成期…… 結婚後 첫子女 낳을 때까지
② 子女出產 및 學領前期 …… 子女出產으로부터 첫子女가 國民學校에 들어갈 때까지
③ 初等敎育期 …… 첫子女가 國民學校에 다니는 時期
④ 中等敎育期 …… 첫子女가 中學校에 다니는 時期
⑤ 高等敎育期 …… 첫子女가 高等學校에 다니는 時期
⑥ 大學敎育期 …… 첫子女가 大學校에 다니는 時期
⑦ 結婚前 同居期 …… 大學에 가지 않고 취직을 했거나, 가사를 조력하거나 하여 結婚前 부모와 동거하는 時期
⑧ 子女 진수기 …… 結婚前 취직이나 軍入隊 等으로 집으로부터 출타하는 時期
⑨ 子女 結婚期 …… 첫子女가 結婚하는 時期
⑩ 中年期(經濟的 回復期) …… 막내子女가 結婚하고, 가장이 은퇴하기 以前의 時期
⑪ 은퇴기 …… 모든 子女가 獨立하고 가장이 은퇴한 時期
⑫ 은퇴후 …… 男便이 死亡하고 혼자 있는 時期

表 1. 회수된 자료의 一般的 狀況

지 역	서 울	대 도 시	소 도 시	계
사 례 수	724	232	203	1,159

학 력	대졸이상	고 졸	중 졸	국졸이하	계
사 례 수	256	274	193	258	981

연 령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계
사례수	54	258	390	226	188	1,116

직 업	유	무	계
사 례 수	245	702	947

세 대	39 歲 이 전	40 歲 이 후	계
사 례 수	312	804	1,116

(＊사례수의 계가 다른 것은 응답자가 누락 기재하였으나 그대로 연구자료로 채택하였음.)

表 2. 家族生活週期를 決定하는 각 연령분포

구분 \ 연령		초 혼	첫자녀 출산	막내자녀 출산	첫자녀 결혼	막내자녀 결혼	남편사망	자녀수	터 울
연령별	20 代	24.2	24.8	26.6				1.5	1.3
	30 代	24.6	25.8	29.6				2.5	2.1
	40 代	23.4	24.9	32.0	45.2	58.7	41.0	3.6	2.5
	50 代	21.4	24.0	34.5	47.5	54.6	43.7	4.7	2.7
	60 代	18.5	21.2	35.0	46.9	58.0	45.1	4.7	3.1
신·구 세대별	39歲이전	24.5	25.7	29.4	49.5		50.3	2.4	2.0
	40歲이후	22.2	24.2	33.2	46.9	57.6	44.0	4.1	2.6
학력별	대졸이상	25.3	26.6	30.9	48.0		38.3	2.5	2.1
	고 졸	23.6	25.0	31.4	47.8	55.9	47.3	3.4	2.4
	중 졸	22.2	23.9	32.1	47.5	60.7	43.0	4.0	2.4
	국졸이하	19.8	22.2	34.4	46.3	57.7	45.1	4.7	2.9
지역별	서 울	23.6	25.2	31.5	46.7	56.8	42.7	3.2	2.4
	대 도 시	23.0	24.7	32.4	47.8	52.0	41.4	3.7	2.3
	소 도 시	20.3	22.4	34.4	46.5	58.2	47.0	4.7	2.8
직업	유	23.0	24.8	32.3	46.6	56.5	43.1	3.5	2.4
	무	22.9	24.6	32.1	47.0	56.8	45.3	3.6	2.4

＊ ⬚ 남편사망자의 경우 평균연령임.

家族計劃 實踐率이 높아 子女數를 적게 낳아 막내子女 出産年齡이 높을 것이라 추측된다. 子女數에 있어서도 서울, 大都市, 小都市 順으로 많았으며 터울에 있어서도 같은 順序로 터울期間이 길어졌다.

主婦의 職業有無別로 考察해 본 結果 평균치 0.1~0.2 정도로 직업을 가진 女性의 初婚年齡이 높고, 첫子女 出産年齡, 막내子女 出産年齡이 높았으며, 子女數에 있어서나 터울에 있어서는 主婦의 職業有無別로 아무런 差異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主婦가 職業을 가졌다 하여 家族生活에 별다른 影響을 주지 않고, 女性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그대로 遂行하면서, 職業을 갖는 二重役割 遂行者임을 立證해 주는 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편 死亡 年齡에 對하여는 調査者中 남편이 死亡한 경우의 事例數에 對한 平均値이므로 실제로 기대되는 餘命年齡과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參考로 할 수 있는 것은 死亡者의 경우 남편 평균연령의 분포로 보아 45歲 前後가 死亡위험 年齡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以上과 같은 結果를 가지고 家族生活의 週期를 決定하는 各 段階의 年齡을 그림으로 表示하여 보면 年齡別, 學力別, 地域別, 職業有無別 차이를 뚜렷이 볼 수 있다.

本 硏究의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年齡과 統計資料에서 나타난 年齡을 比較해 보면 다음 〈표 3 〉과 같다.

調査對象者의 居住地別 家族生活週期 分布는 다음〈表 4 〉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뒷 page).

뒤 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社會에 있어서 서울이 압도적으로 教育을 위한 地域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子女 진수기는 中·小都市의 경우에 있어 就業,유학등으로 출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의되는 點은 韓國 家庭生活에 있어서 家族의 중년기 단계로 經濟的 回復期가 全無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標集의 편파 可能性을 불문하고 期待頻度보다 더높은 頻度値를 보이고 있어 단적으로 韓國社會에 있어 家族生活週期의 특징적인 面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結果이다.

또한 學力別 家族生活週期 分布를 보면 다음〈表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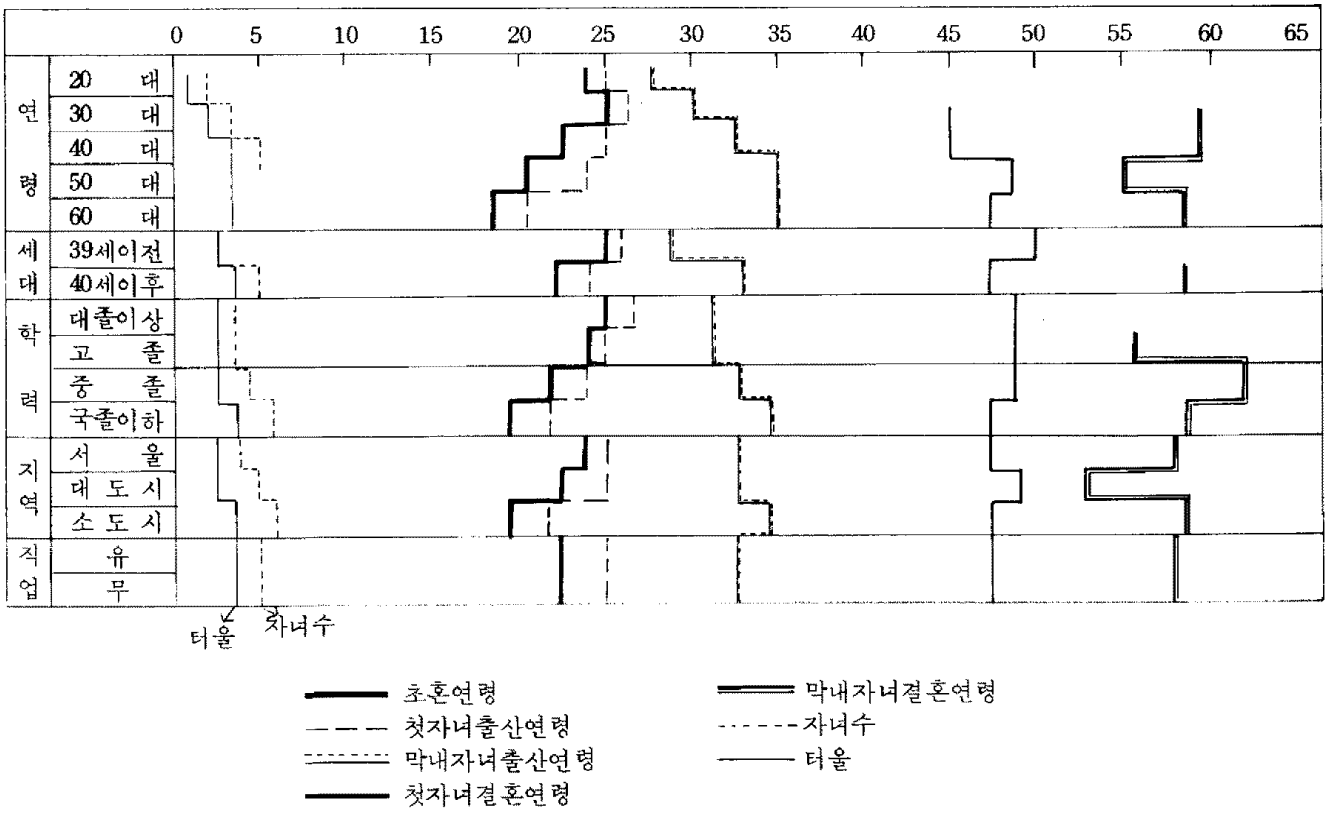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직업유무별 각 평균·연령분포.

表 3. 統計資料와 本 調査結果의 比較

	初婚年齡	첫出産자年齡	막出産내자年齡	첫結婚자年齡	막結婚내자年齡
*統計 資料에 나타난 年齡	23.5	24.5	31	49	55
本 調査에서 나타난 年齡	22.4	24.2	32.6	46.5	52.7

* 統計資料에 나타난 年齡이란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1975)와 인구정보 3호, 5호(1978, 1979)의 資料를 근거로 함.

와 같다.

뒤 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韓國社會에 있어서 家族生活週期의 分布를 보면 初期段階는 學力이 높고 차츰 낮아져서 家族生活週期의 後期段階는 教育 水準이 낮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家族生活에 있어서 젊은 層일수록 教育水準이 높아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變化 경향은 앞으로 韓國 社會에 있어서의 家族生活週期는 계속 變化될 可能性을 나타내 주고 있다.

V. 模型設定 및 論議

家族生活週期 實態調査 結果 韓國 社會에서 나타나는 家族生活週期의 특징적 경향은 子女 進水期 단계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子女를 大學에 보내지 않을 경우 就業을 하거나 軍入隊를 하거나 女子인 경우에는 家事를 돌보며, 結婚 前까지는 父母와 同居하게 되고 막내子女를 結婚시키고 독립시킨 後에는 이미 57歲경의 中年期 以後 段階로, 老年期에 접어들게 되어 中年期의 경제적 回復期가 全無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 特히 美國의 家族生活週期 模型을

表 4. 지역별 가족생활주기 분포 (N) %

주기 \ 지역	서 울	대 도 시	중 소 도 시	計
① 형 성 기	0.97 (7)	* 2.59 (6)	* 2.48(5)	1.56(18)
② 자녀출산 및 학령전기	7.89 (57)	* 20.26 (47)	00.50 (1)	9.08 (105)
③ 초 등 교 육	* 19.39 (140)	9.05 (21)	2.97(6)	14.45 (167)
④ 중 등 교 육	* 9.56 (69)	2.59 (6)	0.99(2)	6.66 (77)
⑤ 고 등 교 육	* 18.14 (131)	3.45 (8)	1.98(4)	12.37 (143)
⑥ 대 학 교 육	* 13.02 (94)	11.64 (27)	2.97(6)	10.99 (127)
⑦ 결 혼 전 동 거 기	6.37 (46)	* 9.05 (21)	4.46 (9)	6.57 (76)
⑧ 자 녀 진 수 기	4.02 (29)	10.34 (24)	* 24.75 (50)	8.91 (103)
⑨ 자 녀 결 혼 기	9.14 (66)	* 27.16 (63)	31.68(64)	16.70 (193)
⑩ 중년기 (경제회복기)				
⑪ 은 퇴 기	4.29 (31)	2.59 (6)	* 6.93 (14)	4.41 (51)
⑫ 은 퇴 후	7.20 (52)	1.29 (3)	* 20.30 (41)	8.30 (96)
計	100.0 (722)	100.0 (232)	100.0 (202)	100.0 (1156)

$x^2 = 382.208$
$Df = 20$
$P < .001$
$\phi = 0.575$

(*) = 기대 빈도보다 높은 관찰 빈도치를 갖고 있음.

表 5. 학력별 가족생활주기 분포 %(N)

학력 / 주기	대 졸 이 상	고 졸	중 졸	국 졸 이 하	計
①	* 4.31 (11)	1.82 (5)			1.64 (16)
②	* 24.71 (63)	8.76 (24)	1.04 (2)	0.39 (1)	9.20 (90)
③	* 33.33 (85)	* 20.44 (56)	8.33 (16)		16.05 (157)
④	* 9.41 (24)	* 10.95 (30)	2.60 (5)	0.78 (2)	6.24 (61)
⑤	9.80 (25)	* 15.69 (43)	* 19.27 (37)	7.00 (18)	12.58 (123)
⑥	11.37 (29)	* 15.33 (42)	* 15.63 (30)	5.45 (14)	11.76 (115)
⑦	1.57 (4)	6.93 (19)	* 13.02 (25)	* 8.56 (22)	7.16 (70)
⑧	2.35 (6)	7.30 (20)	10.94 (21)	* 20.62 (53)	10.22 (100)
⑨	2.35 (6)	9.85 (27)	* 25.00 (48)	* 26.46 (68)	15.24 (149)
⑩					
⑪		2.19 (6)	2.08 (4)	* 8.56 (22)	3.27 (32)
⑫	0.78 (2)	0.73 (2)	2.08 (4)	* 22.18 (57)	6.65 (65)
計	100.0 (256)	100.0 (274)	100.0 (193)	100.0 (258)	100.0 (981)

$x^2 = 572.542$
$Df = 30$
$P < .001$
$\phi = 0.765$

(*)은 기대빈도보다 높은 관찰 빈도치를 갖고 있음.

그대로 引用하는 것은 우리나라 社會實情에 맞지 않음을 實證해 주었다. 本 硏究의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家族生活週期 模型은 다음과 같다.

① 形成期 ……· 結婚으로 부터 첫子女 出産前까지 약 一年間.

· 23歲로 부터 약 一年間 (23 歲～24 歲)

② 子女出産 및 養育期……· 첫子女 出産으로 부터 첫子女가 國民學校에 入學할 때까지

· 24歲로 부터 6 年間 (24歲～30 歲)

※ {子女數 3 人 터울 2 年으로 할 때는 34歲까지 }

③ 子女教育期 ……· 첫子女의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教育時期

· 30歲 부터 12年間 (30歲～42歲)

④ 子女成年期 ……· 첫子女가 大學에 다니거나 就業, 軍複務, 家事를 협조하는 時期

· 42歲 부터 4～6年間 (42-46～48歲)

⑤ 子女結婚期 ……· 첫子女 結婚으로 부터 또는 막내 子女 結婚까지

· 42歲 부터 15年間 (42-46歲～57歲)

⑥ 老年期 ……· 막내子女 結婚으로 부터 배우자 死亡하고 本人이 死亡할 때까지 (57歲 以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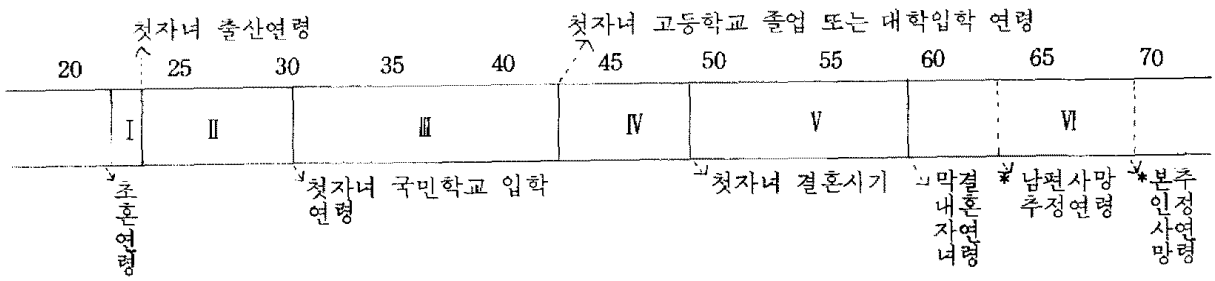
以上의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뒷 page).

뒤 그림은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結果의 平均値이고, 20代를 기준으로 하여 家族生活週期 模型을 추정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20代의 경우 子女數 1.5, 터울 1.3을 正數化하여 子女數 2명, 터울 2년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면 막내子女 結婚하는 年齡이 51歲로 (막내子女 出産年齡 26.6 + 초혼年齡 24.2 = 51) 總平均値보다 7年 정도 앞당겨 지므로 反對로 5段階의 期間이 길어지게 된다. 子女를 1명만 낳을 경우 子女 結婚시키는 年齡이 앞당겨지고, 6段階인 老年期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 때에는 中年期 段階가 設定될 것으로 推定된다. 教育水準이 높고 서울에 居住하는 女性인 경우 비슷한 경향으로 變化될 것으로 思料된다.

本 硏究에서 나타난 結果로써 韓國 家庭生活에 있어서 家族生活週期상 나타나는 問題點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39歲 以下와 40歲 以上의 戰前世代와 戰後世代에 뚜렷한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代와 30代에



Ⅰ 형성기
Ⅱ 子女出産 및 養育期
Ⅲ 子女教育期
Ⅳ 子女成年期
Ⅴ 子女結婚期
Ⅵ 老年期

* 남편사망 추정연령은 韓國人의 평균수명을 參考로 하여 男子의 평균수명 65歲인 경우 부인과의 연령차를 3歲로 하면 부인연령 62歲에 남자의 평균수명의 해당되는 것으로 推定함.
본인사망 연령은 한국인의 평균수명(女子) 69歲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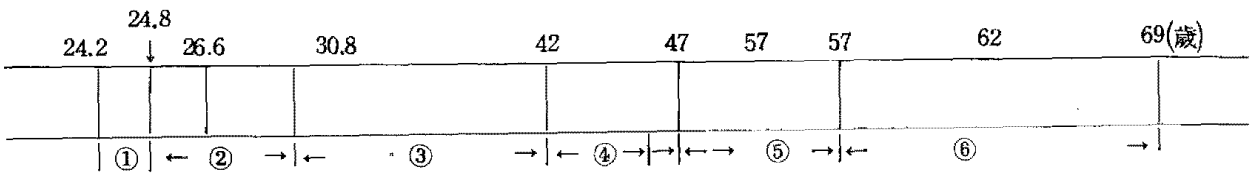
그림 2. 實態調査에서 나타난 韓國 家族生活週期 模型.

있어서도 더욱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어(表 2 參照) 家族生活의 급격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즉 世代 差異로 因한 심한 갈등 현상을 자아낼 우려를 보이고 있다.

2) 40代 이후 世代에 있어서는 子女數가 많고, 새로운 子女教育에 對한 時代的 思潮에 따라 教育을 시키다 보면 바로 老年期에 접어 들게 되고(中年期 段階가 없음), 自身의 노후 準備는 되어 있지 않은 채 자식世代는 다시 새로운 産業社會에 적응을 위한 그들 自身의 준비로 인하여 父母에 對한 부양의식이나 準備意識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父母世代의 老後問題가 問題視된다. 즉 現在의 40歲 以後 世代는 과도기적 苦勞(고통과 노력)世代이다.

3) 20代에 있어서는 初婚年齡, 子女數, 터울등이 父母世代와 전연 다르게 되므로 새로운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生活設計 및 準備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20代에 있어서는 막내子女를 結婚시킨 後의 5段階가 길어질 것이므로 中年期 段階를 設定하여 자신의 自我發展 및 經濟準備 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主婦의 職業有無에 따른 家族生活週期에 있어서 家族生活週期에 영향을 주는 각 연령에 있어서나 子女數, 터울 等에 별다른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女性들이 職業을 가졌다 하여 가정생활에 影響을 주지 않고 있다는 事實로 보아 우리나라의 職業을 가진 女性들의 家庭과 직장이라는 二重役割 遂行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는 비단 女性自身 個人的 問題만에 限하지 않고 韓國 女性文化 發



24.2歲 … 초혼 연령
24.8歲 … 첫자녀 출산연령
26.6歲 … 막내자녀 출산연령
30.8歲 … 첫자녀 국민학교 입학연령
42 歲 … 첫자녀 고등학교 졸업연령
47 歲 … 첫자녀 결혼연령
57 歲 … 막내자녀 결혼연령
62 歲 … 남편사망 추정연령
69 歲 … 本人사망 추정연령

展에 있어서 많은 貢獻을 할 수 없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5) 本 硏究에서는 現在 우리나라 家族生活 實態에 따른 模型을 設定한 것이나 家庭의 經濟生活, 住居生活, 子女養育 및 家族員 個個人의 발달을 위한 더욱 具體的인 家族生活週期 模型 設定에 관한 硏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農村 家庭만을 對象으로 하여 農村家族生活週期에 關한 硏究도 試圖되어야 할 것이며, 三世代(直系) 家族에 對하여도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Ⅵ. 要約 및 結論

本 硏究에서 나타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初婚年齡 平均은 22.4歲로 이는 統計 調査資料에 나타난 初婚年齡 23.5歲보다 1歲정도 낮았다. 이를 年齡別, 學力別, 地域別로 分析해 본 結果, 年齡層이 높아질수록 初婚年齡이 낮아지고, 學力別로는 大卒以上이 初婚年齡이 가장 높고, 國卒以下는 19.8歲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地域別로는 서울, 大都市, 小都市의 順으로 初婚年齡이 낮아졌다.

2) 첫子女 出産年齡은 結婚後 一年이 보편적이었으며, 初婚年齡과 같이 年齡別, 學力別, 地域別 差異를 보이고 있었다. 첫子女 出産年齡 平均은 24.2세로 통계자료에 나타난 24.5歲와 비슷하였다.

3) 막내子女 出産年齡의 平均은 32.6세인데 이는 39歲 以前 世代(29.4歲)와 40代 以後 世代(33.2歲)와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特히 20대에 있어서는 26.6歲로 현격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戰前世代와 戰後世代에 對한 家族計劃 敎育 보급의 差異結果라 보여진다.

4) 첫子女 結婚年齡의 平均은 46.5歲로 統計資料 結果인 49歲와 差異를 보이고 있다.

5) 막내子女 結婚年齡의 平均은 52.7歲로 이것 또한 統計資料 結果인 55歲와 約干의 差異를 보이고 있어, 統計調査와 標本調査와의 差異를 나타내 주고있다.

6) 子女數와 터울에 있어서는 年齡別로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어서 家族計劃 實踐世代와 非實踐世代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7) 主婦의 職業有無別로는 별다른 差異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8) 家族生活週期別로 分析해 본 結果, 子女進水期가 나타나지 않고, 中年期 段階의 經濟的 回復期가 전연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막내子女를 結婚시키고 나면 바로 57~58歲의 노년기 단계가 되었다.

以上의 結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家族生活週期 模型을 設定하였다.

① 形成期 : ·結婚으로 부터 첫子女 出産까지 約 一年間

· 23歲로 부터 約 一年間(23~24歲)

② 子女出産 및 養育期 : ·첫子女 出産으로 부터 첫子女 國民學校에 入學할 때까지

· 24歲로 부터 約 6年間(24歲~30歲)

③ 子女敎育期 : 첫子女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敎育時期

· 30歲로 부터 12年間(30歲~42歲)

④ 子女成年期 : ·첫子女 大學에 다니거나 취직, 軍入隊, 家事를 協助하는 時期

· 42歲로 부터 4~6 年間(42~48歲)

⑤ 子女結婚期 : ·첫子女 結婚으로 부터 막내子女結婚까지

· 48歲로 부터 6~9 年間(48歲~57歲)

⑥ 老年期 : ·막내子女 結婚으로 부터 배우자 死亡하고 본인이 死亡할 때까지(57歲 이후)

위의 家族生活週期 模型은 現 우리나라 家族生活에 있어서 標集對象의 總平均에 依한 結果이고, 앞으로 20代에 있어서는 子女數가 1~2名으로 制限되고 그들 子女의 初婚年齡이 變化될 것을 감안한다면 家族生活週期의 變化를 豫想할 수 있다. 즉 6段階인 老年期가 더욱 연장되고 앞당겨질 것이므로 中年期 段階가 나타날 것으로 思料된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① 形成期, ② 子女出産및 養育期, ③ 子女敎育期, ④ 子女成年期, ⑤ 子女結婚期, ⑥ 老年期의 6段階로 設定하였으며, 앞으로 20代 이후의 젊은 世代를 위하여는 中年期 段階가 1段階 더 추가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家族生活週期는 家庭의 經濟生活, 住居生活, 子女養育 等에 따라 約干의 差異있는 段階 設定이 必要하므로 앞으로의 더욱 具體的 硏究가 要求된다.

家庭의 經濟準備 및 行動을 위해서는 老後準備를 위한 經濟的 回復期(Bigelow)가 設定되어야할 것이며, 子女養育을 위하여는 人間發達의 理論에 立却하여 子女敎育期에 있어서도 學童期와 靑年期(10代)를 區分하여 發達課業을 遂行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中年期의 經濟的 回復 뿐만 아니라 心理的 社會的 發達의 特徵的 要素를 감안하여, 中年期 段階를 設定하여 人間發達의

準備를 이룰 수 있도록 E. Duvall에 依한 8段階가 有用하리라 본다.

家族問題 解決 및 豫防을 위하여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즉 家族發達 段階에 따른 經濟行動(消費者行動), 住居行動, 子女養育 行動을 위한 消費者 敎育, 父母 敎育이 實踐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敎育을 전담할 專門家 養成이 時急한 일이다. 또한 家族生活週期의 後期 段階가 연장될 것을 豫測하여 女性人力의 效率的 活用을 위한 女性就業에 對한 보다 戰略的 硏究가 試圖되어야 하며, 그것이 實踐될 수 있는 制度的 뒷받침이 時急하다.

REFERENCES

1) 玉先花 : 한국가정의 가정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성심여자대학 생활과학연구논집, *Vol. 1., No. 1, 1980, p 2.*
2) 유영주 : 가족관계학, 教文社, *1980, p 83.*
3) 田內幸一(編) : 買い手行動の 構造, 日本生產性本部, 昭和 *44, pp 75-76.*
4) E. Duvall : *Family Development, Lippincott, 1971, p 114.*
5) 田內幸一(編) : *op. cit., p 77.*
6) Lansing and Morgan : *Consumer finances over the Life Cycle, Consumer Behavior, Vol.2, 1955, pp 36-51.*
7) Lansing and Kish :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2, No. 5, 1957, pp 512-519.*
8) E. Duvall : *op. cit., pp 116-117.*
9) E. Duvall : *Family Development, Ljppincott, 1971, p 115.*
10) Wells and Gubar : *Life Cycle Concept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 No. 3, 1966.*
11) *Ibid.*
12) Coughenour, C. Milton : *Functional Aspects of Food Consumption Activity and Family Life Cycle Stage, J.M.F, Vol. 34, No. 4, 1972, pp656-664.*
13) Boyd, C. Rollins and Kenneth Cannon :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M.F, Vol. 36, No.2, 1974, pp 271-282.*
14) S. Smart and C. Smart : *Recalled, Present and Predicted Satisfaction in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in New Zealand, J.M.F, Vol.37, No. 2, 1975, pp 408-415.*
15) Ruža First-DiLić : *The Life Cycle of the Yugoslav Peasant Farm Family, J.M.F, Vol.36, No. 4, 1974.*
16) Ruth E, Deacon and Francille M. Firebaugh :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s, Boston M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 67.*
17) Zaltman G. and Wallendorf. M : *Consumer Behavior John Willey E Sons, 1979, p 63.*
18) B. Spanier, William Saucer and Robert Larzelere :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Family Life Cycle, J.M.F, Vol. 41, No. 1, 1979, pp 27-38.*
19) Marta Tienda : *Age and Economic Dependency in peru : Family Life Cycle Analysis, J.M.F, Vol. 42, No. 3, 1980, pp 639-653.*
20) B. Schafer and M. Keith : *Equity in Marital Rol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M.F, Vol. 43, No. 2, 1981, pp 359-367.*
21) Kiyomi, Morioka : *Life Cycle Patterns in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uth shonle Cavan(ed), Marriage and Family in the Modern World Readings, Rowell N.Y., 1973, pp 105-120.*
22) 望月嵩, 現代家族の生と死, 望月嵩・本村汎(編), 現代家族の危機, 동경 : 有斐閣, 昭和 55, *pp 2-22.*
23) 田內幸一(編), *op. cit., p 85.*
24) 伊藤秋子, 家庭の經濟生活と消費構造に關する硏究, 日本家政學雜誌, *Vol. 31, No. 1, 1980, pp 3-12.*
25) 柏木重秋(編), 消費者行動論, 東京 : 白桃書房, 昭和 *57, pp 95-109.*
26) 江見康一, 伊藤秋子, 家庭經濟學, 東京 : 有斐閣, 昭和 *57, pp 114-116.*
27) 김주수・이희배 : 家庭關係學, 서울 : 進明出版社, *1981, pp 57-61.*
28) 박혜경 : 老後生活을 위한 家計設計, 韓國人의 노후생활복지설계, 서울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열매문

고 9, 1979, pp 25-42.
29)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한국인의 長期生活設計 硏究, 열매문고 11. 서울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 pp 36-63.
30) 玉先花 : op. cit., pp 17-27.
31) 권희완 :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주기 변천에 관한 고찰, 人口보건논집, 1권1호, 1981, pp69-71.
32) 강희석·최인현·임종수 :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人口보건논집, 1권2호, 1982, pp 72-81.
33) 권희완 : op. cit., pp 69-71.
34) 강희석 외 2 人 : op. cit, pp 72-81.